

월우 스님은…1978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석암 스님에게 사미계를, 자운 스님에게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하고 경희대에서 행정학 석사, 건국대에서 행정학 박사, 중앙승가대에서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12, 13, 14, 16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 총무처장,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1월 12일 중앙승가대 본관에서 봉행된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주요 인사 700여 명이 참석, 취임을 축하했다. 총동문회 등에서는 교육불사 기금을 전달하며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기원했다.

“승가교육 요람…사회공헌 인재육성”

인터뷰 중앙승가대학교 제9대 총장 월우 스님

김포=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조계종을 대표하는 승가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교 제9대 총장에 월우 스님이 취임했다.

우수 교수진 초빙, 글로벌 인재 양성, 지역사회 봉사 등 대내외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 월우 스님은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수립, 승가교육의 요람으로서 사격을 일신한다는 방침이다.

월우 스님은 1월 12일 취임법회에 앞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중앙승가대는 삼보정재로 설립해 불가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이라며 “인재불사가 잘 이뤄져 종단과 사회에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Q 총장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취임 소감을 말씀 주신다면요?

지난해 12월,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이후 승가대학의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위한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단 스님들과 교직원, 학인스님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충분히 귀담아 듣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총장으로서 중점을 둔 중장기적인 발전방향과 학교 운영계획이 궁금합니다.

승려전문교육기관으로서 교수들의 연구역량을 키우고, 한국은 물론 세계인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수행자를 길러내는 것이 제일의 목표입니다. 훌륭한 교수와 연구원을 영입해 학문적인 성과를 도출해 내도록 격려하고 강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국내외 학자들을 중심으로 연구업적을 쌓아온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 교육현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학인들은 열심히 수학해서 수행자로서 품성을 갖추고 글로벌 인재로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대학은 교수와 학생이 주축이돼야 합니다. 교수들은 활발한 연구로 학술적인 성과를 이뤄나가고, 학인들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한다면 대내외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Q 몇 년 사이 출가자가 감소하면서 기본교육기관마다 학인 모집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려움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보완책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난 40여년 간 한국불교의 선지식을 양성하며 한국불교를 대표했던 중앙승가대도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물론, 연간 전체 출가자 수에 비춰보면 우리 중앙승가대 입학생 수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하지만 옛 명성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저는 우리 승가대학이 도전해야 할 몇 가지 과제에 집중해 교육체계의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본교 교육이 사회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확고한 승가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고자 합니다.

Q 다양한 주체의 참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스님들에게만 개방된 학교 운영에서 저변을 확대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종단에서 포교사가 1년에 수백 명 배출됩니다. 포교사들과 대학원 과정을 함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승가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기에 원칙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종립 고등학교 등 학생들과 함께 ‘단기출가’ 제도를 진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가자의 삶을 체험하는 동시에 대학생활도 가능합니다. 대학진학과 함께 승가문화를 경험하면서 출가가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직접 느끼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승가대에서의 단기출가는 대학생으로 승가와 불교문화를 체험해본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출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수 교수 초빙·지역봉사 등
대내외 성장 위한 비전 제시

종단과 소통 동문 지혜 모아
“승가교육의 발전 이루겠다”

Q 총장 스님과 중앙승가대학교와의 인연이 궁금합니다.

22년 전, 10여년 간 학교에서 총무처장 소임을 봤습니다. 제3~4대 총장 종범 큰스님을 모시고 대학원 설립에 힘썼습니다. 또 종단의 주요 행사뿐 아니라 세계여성불자대회와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시도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대학의 대소사를 원만히 회향했다고 자부합니다. 모교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소임을 마무리하고 본사인 대흥사 주지 소임과 종단 행정의 중요한 직책을 보면서도 항상 마음은 학교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력이 된 것인지 다시 인연이 돼 학교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Q 애교심이 대단해 보이십니다. 스님의 학창시절은 어땠나요?

승가대가 막 개교해 교육부 미인가 상태였음에도 전국 각지에서 학인들이 몰려왔습니다. 400여 명이 함께 공부할 때였죠. 신심에 불탔고, 신나게 공부하며 책값을 마련하겠다고 탁발도 불사했습니다. 어른 스님들께 꾸중을 듣기도 했지만 그때의 뜨거운 열정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총장이 된 지금 강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40년 간 성장한 학교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중책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동문으로서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Q 대학은 교육, 연구활동 못지않게 지역사회와의 연계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포교와 문화 등 대사회적인 활동을 위한 계획이 있을까요?

중앙승가대가 위치한 김포 풍무동은 인천과 일산 등의 경계에 있습니다. 600~700만 인구가 집중돼 있죠.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려 합니다. 김포시민은 물론 대학과 인접한 지역주민들의 열린 공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중앙승가대에는 이미 출중한 교수들이 포진해있는 만큼 시민들을 위한 불교문화, 특히 명상 강좌 등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행과 명상, 치유가 되는 문화 교육으로 사회에 이익이 되고 행복의 길을 선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특강도 준비 중입니다. 문화, 인문, 철학 등 방면에서 명사를 초청, 강연을 열 계획입니다. 특강은 교내 구성원들뿐 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도 공개됩니다. 이를 통해 폭넓은 지식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Q 중앙승가대는 스님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만큼 동문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동문 스님들의 후원이나 장학기금 유치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앙승가대 출신 스님들이 종단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사회적인 책임도 큽니다. 그동안 학교가 질적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2000여 승가인이 합심,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다면 학교위상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승가대 동문들과 함께 ‘마중물’이라는 후원회를 운영중입니다. 한 달에 조금씩 모연된 것으로 장학금 등 다양한 곳으로 회향됩니다. 십시일반의 힘이죠. 우수한 신입생을 확보, 선지식이 꾸준히 배출되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재정안정을 통한 인재불사와 승가교육 발전을 위해 보시공덕에 동참해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Q 마지막으로 종단과 종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계묘년 새해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으로 소임을 시작함에 있어서 토끼 같은 지혜를 발휘해 지금의 역경을 잘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단의 교직자 스님들과 항상 소통하고 동문 선후배 스님들과 지혜를 모아 재가 신도들의 외호 속에서 한 힘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후원을 다시 한 번 바랍니다.

중앙승가대학교 제9대 총장
무생 월우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중앙승가대학교 동문 일동

총동문회장 석산 성행 스님

인류를 위하여 연꽃을 피우는
중앙승가대학교 총동문회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123 (중앙승가대학교 자비관 3층) 전화 031-980-7895 팩스 031-980-7891